

Suaste Cherizola, Jesús

Working Paper

상품에서 자산으로: 권력으로서의 자본과 금융의 존재론

Provided in Cooperation with:

The Bichler & Nitzan Archives

Suggested Citation: Suaste Cherizola, Jesús (2023) : 상품에서 자산으로: 권력으로서의 자본과 금융의 존재론, Akaroot, Seoul,
https://akaroot.co.kr/bbs/board.php?bo_table=b0501&wr_id=194&sca=%EB%85%BC%EB%AC%B8%EB%B2%88%EC%97%AD ,
<https://bnarchives.yorku.ca/792/>

This Version is available at:

<https://hdl.handle.net/10419/279956>

Standard-Nutzungsbedingungen:

Die Dokumente auf EconStor dürfen zu eigenen wissenschaftlichen Zwecken und zum Privatgebrauch gespeichert und kopiert werden.

Sie dürfen die Dokumente nicht für öffentliche oder kommerzielle Zwecke vervielfältigen, öffentlich ausstellen, öffentlich zugänglich machen, vertreiben oder anderweitig nutzen.

Sofern die Verfasser die Dokumente unter Open-Content-Lizenzen (insbesondere CC-Lizenzen) zur Verfügung gestellt haben sollten, gelten abweichend von diesen Nutzungsbedingungen die in der dort genannten Lizenz gewährten Nutzungsrechte.

Terms of use:

Documents in EconStor may be saved and copied for your personal and scholarly purposes.

You are not to copy documents for public or commercial purposes, to exhibit the documents publicly, to make them publicly available on the internet, or to distribute or otherwise use the documents in public.

If the documents have been made available under an Open Content Licence (especially Creative Commons Licences), you may exercise further usage rights as specified in the indicated licenc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상품에서 자산으로 : 권력으로서의 자본과 금융의 존재론

저자 | 수아스테 체리졸라(Jesús Suaste Cherizola)

번역 | 정용택 (성균관대 비교문화협동과정 강사)

▶이 번역논문은 [2022년 아카루트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상품에서 자산으로: 권력으로서의 자본과 금융의 존재론 *

제수스 수아스테 체리졸라(Jesús Suaste Cherizola)¹⁾

번역: 정용택 (성균관대 비교문화협동과정 강사)

초록

자산은 자본가 계급의 실천 및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관한 비판적 분석은 상품교환을 자본주의 분석의 초석이라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논문은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나는 자산이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견고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자산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 서술을 정교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한에서, 자산 분석은 금융 분야를 재개념화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밀접히 연관된다. ‘자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금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좌표를 제공해줄 것이다.

핵심어: 자산assets, 상품commodities, 금융finance, 금융화financialization, 소유권ownership, 권력power, 재산property, 가치value

서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는 하나의 ‘거대한 ~~상품~~자산 집적’으로 나타나고, 하나하나의 자산은 이러한 부의 기본형태로 나타난다.
- 카를 마르크스를 의역하여

신기루의 반란

2008년의 금융위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일부 근본적인 전제들을

* Jesús Suaste Cherizola, “From Commodities to Assets: Capital as Power and the Ontology of Finance,” *Review of Capital as Power*, Vol. 2, No. 1, 2021, pp. 1-29.

1) 푸에블라 오토노마 대학교(Universidad Autónoma de Puebla). jsuaste86@gmail.com. 이 논문은 멕시코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검토할 기회를 선사했다. 위기의 진원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은 수수께끼였다. 몇 가지 금융계약의 가치하락이 어떻게 해서 전(全)세계 자본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지를 이해하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금융체계의 게임과 베팅으로 인해 물질적 파괴가 일어난 이 사건들에는 수수께끼 같은 사회의 이미지가 투사되었으며, 이는 철학적으로 보자면, 생산의 물질적 기반에 대한 비물질적 실체들의 반란으로 간주될 지경이었다. 실로 어떻게 해서 하드 드라이브와 회계대장에 저장된 상징들의 집합이 노동력, 원자재, 기계, 지식,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진 생산체계를 사정없이 파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치 생산이 사회의 새로운 ‘실제적 토대’인 금융 인프라 위에 세워진 **단순한 상부구조**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포스트모던 정신들은 금융 기호라는 가상의 영역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에 대한 생각에 열광하는 듯 보였다. 유물론적 영혼들은 금융과 가격이라는 기만적 세계로부터 생산과 가치의 안전한 대지로 돌아갈 길을 모색하면서, 마르크스의 『자본』 제3권을 향해 달려갔다.

확실히, 금융은 수수께끼의 영역이다. 금융은 생산은 아니지만, 그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른바 ‘금융경제’(financial economy)는 보통 ‘생산적’, ‘물질적’ 또는 ‘실물(적)real’ 경제와 대조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는 금융영역이 비생산적이고, 비물질적이며, 심지어 비현실적non-real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금융 기호들은 자본주의의 기반으로 여겨지기에 너무 가벼워 보이지만, 생산의 ‘단순한 반영’으로 간주되기에 너무 강력해 보인다.

금융분야의 발전과 고도화는 ‘금융화’ 내지는 ‘금융자본주의’, 즉 금융자본과 금융기관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국면’의 자본주의—과거의 ‘산업자본주의’와는 다른—같은 용어들의 대중화를 낳았다. 정반대 방향으로, 자본주의적 질서는 여전히 실물경제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의 동학이 궁극적으로 생산적/물질적 동학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²⁾ 이 논쟁에서 어떤 편에 서든 관계없이, 오늘날 사회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생산이라는 ‘실물경제real economy’와 금융이라는 ‘종이경제paper economy’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물경제가 금융경제를 결정하는지, 금융경제가 실물경제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이 두 가지 가능성들 사이의 어딘가에 진리가 놓여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

금융으로서의 자본, 권력으로서의 자본

권력으로서의 자본 이론Capital as Power theory(이하 권력자본론CASP)은 이러한 질문들을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는 틀을 제공한다. 실물영역과 금융영역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러한 구별이 애초부터 타당한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금융을 실물적/물질적/생산적 경제와 대립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구별은 어떠한 가정에서 비롯되는가? ‘신기루의 반란’이

2) 그 방대한 논쟁을 자세히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 및 금융화라는 논쟁에 대한 관련된 기여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Bryan and Rafferty 2006; Chesnais 2016; Duménil and Lévy 2011; Durand 2014; Epstein 2005; Foster and Magdoff 2009; Hudson 2015, 2017; Krippner 2005, 2011; Langley 2008; Lapavistas, 2011, 2016; Leyshon and Thrift 2007; MacKenzie 2006; Martin 2002; McNally 2011; Muniesa, et al. 2017.

현대 사회이론에 제기하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금융’ 개념이 존재하는가?

이 논문은 급진적 이론에서 자주 간과되는 대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대상은 바로 자산이다. 내가 추구하는 연구의 주된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산 분석이 경제적 거래의 일반이론을 정교화하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자산 분석은 금융의 존재론을 재개념화하기 위한 터를 닦아준다. 연구 결과는 통상적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구조화하는 구별짓기의 일부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이끌 것이다.

특히 나의 연구는 조나단 닛잔(Jonathan Nitzan)과 심손 비클러(Shimshon Bichler)에 의해 제기된 두 가지 주요한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재서술한다. 첫째, 비클러와 닛잔은 자본가 계급을 “그 소유주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권을 부여” 하는 자산을 통제하는 사회 집단으로 정의 내린다(2009: 314). 자산은 기업과 투자자의 대차대조표를 본연의 서식지로 삼는 상징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토록 명백하게 무의미한 실체가 그토록 많은 권력을 부여한다고 상상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어두컴컴한 회계 사무소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으로의 거대한 도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산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일단의 개인들을 지배계급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까?

둘째로, 비클러와 닛잔은 “모든 자본은 금융이며, 오로지 금융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2009: 262). 다시 한번 이 테제는 당혹스럽다. 자본주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노동 착취, 자원 배분 및 자연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두루 망라한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주로 ‘금융의 외부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이 불협화음은 개념적 명료화를 요구한다. 만일 “모든 자본은 금융” 이라면, 이 진술이 함의하는 금융의 개념은 무엇인가? 금융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자산에 관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급진적 사상가들이 상품 분석에는 수천 페이지를 할애하지만 정작 자산에 관해선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본가들이 정반대의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더욱 놀라운 일이다. 상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그들은 자산에는 모두 관심을 기울인다. 사실상, 오로지 현재와 미래의 자산 상태를 논의하는 데만 전념하는 신문, 웹사이트,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도 존재할 지경이다. 더 나아가, 자산 연구에, 더 정확히는 현실적 자산이나 잠재적 자산의 거대한 저장소로서 세계를 해석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 학문적으로 완전히 전문화된 분과—금융—가 존재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상품과 상호작용하지만, 오직 자본가들만이 자산을 통해 세계와 자신들의 관계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자산은 또한 지배계급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자본 축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품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데 반해, 자본의 실제 축적자들은 자산을 그들의 이론과 실천의 중심에 두는 현행의 지적 분업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다.

자산에 대한 관심 결핍은 우발적인 누락이 아니라 이론적 편향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급진적 사상가들에게, 금융은 신뢰할 수 없는 연구 현장을 표상한다. 마르크스 이후로 (그리고 마르크스로 인해),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지식은 환상적인 명목상의 현시(顯示)의 세계가 아니라, 생산이라는 견고한 토대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었다. 상품은 노동자들의 손에서 유래하지만, 자산은 자본가들의 마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지도에 따르면, 이 논문의 시도는 관념론적 사고와 속류 경제학자들에게만 적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습에 도전하면서, 나는 자산이 상품 분석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경제적 거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자산 분석이 자본주의에 대한 ‘관념론적’ 이해로 이끌기는커녕, 금융영역이 지배와 저항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금융적 허구**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이 논문은 상품을 제거함으로써 권력의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부는 자산의 거대한 집적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실체들이 그 질서를 조직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적절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³⁾

자산

“상품 물신숭배와 그 비밀”의 물신숭배와 그 비밀

마르크스의 연구는 상품,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부여되는 외적인 대상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한다. ‘상품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르크스는 생산의 주된 요소들, 즉 노동력, 화폐, 상품, 생산수단을 서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선 물리적 대상이 부재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루어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마르크스 자신도 이 문제를 승인하고 있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것[예컨대 양심이나 명예 등]이 그 소유자에 의해 판매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통해 상품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물건은 가치(價值)를 가지지 않지만 가격(價格)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표현은 수학상의 어떤 양[예: 허수]과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Marx/마르크스, 1981a/2015a: 197/133)

조금 더 나아가, 마르크스는 “**미개간지**”를 이러한 사례들에 추가한다. 그렇다면, 한편으로 진정한 상품(인간노동의 담지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적 가치를 갖지 않고서 상품형태를 단순히 **차용하는** 실체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나중에 우리는 마르크스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으로 구성된 **실물자본** *real capital*과 증권거래소, 공공채권, 은행화폐로 이루어진 **가공자본** *fictitious capital*을 구별할 때 동일한 논거를 발견한다(Marx/마르크스, 1981b/2015c와 2015d: Ch. 25-32/25-32장 참조). 가치법칙이 실물자본의 동학을 지배한다. 반대로 가공자본의 세계에서는 ‘비합리적 표현’과 ‘비합리적 형태’가 지배한다.

3) 자산 연구는 느리긴 하지만 전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한 유망한 분석 분야이다. 최근에 버크와 무니에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정보, 지식, 공공 인프라, 교육 등)이 어떤 식으로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 전환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책을 편저했다(Birch and Muniesa, 2020). 같은 맥락에서, 리사 앳킨스, 멀린다 쿠퍼, 마르티존 코닝스는 불평등의 증가와 노동계급의 생활 수준 저하를 설명하기 위해 “상품의 논리”에서 “자산의 논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Lisa Adkins, Melinda Cooper and Martin Konings, 2020). “상품은 오늘날의 경제적 구조조정의 성격을 이해하기에는 시대착오적인 렌즈이다”(p. 15).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계급과 불평등의 논리를 재편성”해왔고(pp. 28-29), 따라서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은 자산 인플레이션이 임금 정체에 대응하는 더 넓은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마르크스의 인식론적 전략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 상품과 가격이라는 ‘상상적’ 표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과 그 가공자본을 구별함으로써 현실을 두 개의 존재론적 질서로 분할한다. 둘째, 우리는 이러한 질서들 중 오직 하나만이 체계의 합리적 토대—**가치법칙**, 즉 상품을 생산하는 데 요구되는 추상노동의 양에 따른 상품교환의 법칙—를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해야만 한다. 다른 질서는 외양의 영역—허구, 비합리적 형태, 복제물, ‘단순히 명목상의’ 변종들, ‘순수하게 허구적인’ 자본들과 모든 종류의 물신(物神)들—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교환에 기초하여 경제적 거래를 이해한다면, 그 결과적인 틀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경제적 거래(상품교환)의 하위집합을 전체 경제체계를 지배하는 원칙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생각은 자의적이다. 그리고 일단 상품형태가 교환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되면, 다른 형태의 경제적 거래는 단지 왜곡이나 신비화로 간주될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상품교환이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적 거래의 광대한 세계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로 변형시키는 것은 경험적 증거로부터 도출된 작업 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결정이다. 따라서 ‘상품’은 이론적 물신—초자연적인 설명 능력을 부여받은 개념—이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가치를 갖지 않고서 가격을 갖는 실체들이 확산되는 현상은 확증도 없이 주장되는 가치법칙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나타낸다.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금융의 운용이 그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 그리고 상품 생산은 금융의 동학에 점점 더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가치법칙은 경제체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세계는 거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왜곡의 형태를 취한다. 가치법칙은 어디에도 없고, ‘비합리적 표현’은 현실 그 자체가 된다.

마르크스는 상품에 부착된 물신숭배 배후의 원인을 해독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비판이 충분히 멀리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진정한 상품 물신숭배는 상품이 신비를 담고 있다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 유일한 ‘비밀’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상품 물신숭배를 사라지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초월적인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자격권한: 나는 X를 할 수 있고, 너는 Y를 해야 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경제적 교환에 대한 분석의 기초를 자산 개념에 둘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이 마르크스주의 이론 내에서 상품이 보유한 과도한 특권을 이제 자산에 투여하려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이 분석의 목적은 모든 경제적 거래—상품 교환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금융적인’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자산이란 무엇인가? 편람과 사전에 실린 관례적인 정의들은 다소 느슨한 경향이 있다. 몇 가지 예를 참고하자. 자산은 다음과 같다.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 소유자에게 가치 있는 아무 물건.” (Smullen and Hand 2005)

“회사나 사람에 속하고, 가치를 지닌 어떤 것.” (A&C Black 2005)

“미래의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개인, 법인,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 (Investopedia)

“개인, 회사, 또는 정부기관 소유의 가치를 지닌, 부가적인 가치/수익을 창출하거나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금융 계약이나 물리적 대상.” (Banks 2010)

‘어떤 것’, ‘아무것’, ‘아무 물건’, ‘자원’, ‘계약이나 물리적 대상’. 자산을 정의하기 위해, 이 정도 범위의 용어가 필요하다면, 자산은 매우 이질적인 것임에 틀림 없다. 자산은 식물, 장비, 현금, 예금 계좌, 파생상품, 채권, 주식, 차량, 컴퓨터, 토지, 건물, 기계류, 가구, 도구, 재고자산, 예술 수집품, 그중에서도 특히 특허, 저작권, 자격[면허] 등의 소유권을 포괄할 수 있다. 명백히, 경제적 가치를 가진 어떤 개체라도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⁴⁾

열거된 자산들 중 일부는 물리적 대상(자동차, 건물, 기계 등)과 연관된다. 하지만 우리는 물리적 대상을 수반하는 거래가 경제적 교환의 세계의 단지 하위집합일 뿐임을 이미 확인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물체들의 현전presence이 자산을 정의 내리는 특성이 될 수는 없다. ‘물리적 대상’과 ‘금융 계약’의 이원론을 벗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만일 자산이 가치있는 ‘아무것anything’ 이자 ‘어떤 것something’ 이라면, 그것들이 모두 암시하는 그러한 ‘것thing’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실체들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나는 자산이 오직 사회적으로 인가된 **능력의 조합**으로 정의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자산은 **자격권한entitlements**이다. 둘째, 자격권한이 경제적 거래에서 교환되는 현실적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테제를 네 가지 명제를 통해 발전시킬 것이다.

1. 그 내용에 따르면, 자산은 일체의 권리들을 지정하는 일군의 문장들에 불과하다. 각각의 자산에 담긴 권리들의 복잡성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가 자산의 성격을 바꾸진 않는다. 모든 자산들은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행할 수 있도록 자격권한이 부여된 것을 지정하는 일체의 항목들이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다.⁵⁾
2. 자산은 그 소유자들에게 **자격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장들의 조합 이상의 어떤 것이어야만 한다. 일군의 문장들이 자산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일부 구

4) 금융담론이 제공하는 정의는 출발점으로만 유용하다. 하지만 내가 정의하는 방식은 회계관습에서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예컨대, 회계사들은 자산의 존재를 영업권goodwill으로 인식한다[굿윌은 회계학과 회계 업무 현장에서 주로 ‘영업권’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권리를 뜻하진 않고, 다만 특정한 무형자산 항목에 넣기에 애매한 것들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굳이 번역하지 않고 ‘굿윌’ 그대로 쓰자고 제안하기도 한다-역자]. 영업권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포함되는데, 이는 거래 가능한 실체가 아니라, 인수 전과 인수 후의 기업 가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회계적 발명품이다. 더 나아가, 회계관습이 제안하는 분류(유형적, 비물질적, 무형적 등)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유용한 개념의 구축에 타당한 준거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소유주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체계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 인간’이 실제 소유주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신원확인 체계는 서명, 사진, 지문, 도장, 인증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을 사용 중이다. 신원확인 과정은 특정 신체(물질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인식되는 인물과 연결한다.

성원들이 자산이 승인하는 권리들의 조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구성원들을 자산의 ‘수취인’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인정이 자산에 포함된 문장들에 수행적 권력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자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유자에게, 자산은 일체의 **권리들**을 지정한다. 그것을 인준하는 주체들에게 자산은 일체의 **지시들**이다.

3. 자산은 그것이 승인하는 일체의 권리들/지시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이라고 누군가가 예상할 경우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치를 갖는 것은 수행적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수행적 권력이 없다면, 자산은 단지 일체의 문장들일 뿐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논문의 독자가 타지 마할의 유일무이한 소유자이다”—은 누구도 그것이 지켜지리라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산의 **수행적 권력**은 그 소유자의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헌신하는 주체들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 단순한 사실이 권력의 결정적인 속성을 부각시킨다. 즉, 자연적 세계에서 나는 내 몸이 내게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사회적 세계에서, 나는 타인들이 내게 행하도록 허락하는 것만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4. 자산은 팔 수 있는 **청구권** *claims*이다. 이는 자산이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은 일체의 권리들/지시들이 가격을 받아 화폐라 불리는 회계 단위 위에 따라 교환되는 체계이다.⁶⁾ 사회 구성원들이 **자격권한**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체계가 시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판매용이 아닌 **권리증들** *titles*이 많으며, 화폐를 지불하는 것으로 취득될 수 없는 **권리들**도 많다는 얘기다). 자격권한의 모든 이전이 경제적 거래는 아니지만, 모든 경제적 권리는 권리들/지시들의 교환이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경제적 거래의 세계 내부에 자산의 자리를 지정해야 한다. 경제적 거래는 두 축을 따라 분류될 수 있다.

1. **공식적 거래 대(對) 비공식적 거래**. 일부 경우에서, 거래는 공식적 법규code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장외 시장에서는 구두 계약과 참가자들의 신뢰에만 의존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이전이 공식적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예컨대,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단순한 거래에도 특정한 권리/지시가 교환되었음을 증명하는 바우처, 영수증, 티켓 및 다른 장치들이 포함된다. 일상의 경제적 거래(일반적인 재화 획득)에서, 권리들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알고 있어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될 수 있다. 반대로, 금융 계약의 약관 및 조건들은 수많은 페이지를 요구하고, 너무나 복잡해서 오직 전문가들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거래에서 다른 정도의 법규화를 가진 협정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6) 경제적 거래에서 자산이 화폐로 교환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화폐가 경제적 거래의 체계 내에서 양면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화폐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경제적 교환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회계의 단위로서 화폐는 ‘팔 수 있는’ 단위로서의 자산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화폐 그 자체가 팔릴 수 있으며, 외환 시장에서는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탐구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2. 합법적 거래 대(對) 비합법적 거래. 경제적 거래는 경제의 합법적 영역에 속하거나 아니면 (조직된 범죄에서 분산된 ‘부패’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비합법적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비록 법률의 권위를 갖고 있진 않을지라도, 비합법적 경제 거래는 자체적인 규제 및 인준 기제(機制)를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비합법적 경제 거래 역시 자격권한의 이전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 축과 관련하여, 자산은 잘 법규화된 거래의 하위집합에 속한다. 두 번째 축과 관련하여, 자산은 합법적 거래의 하위집합에 속한다.

이제, 우리가 내린 정의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면, 시장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실체들은 일체의 권리들/지시들로 식별되고 서술될 수 있다. 이것은 자산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경제에선 물론이고, 더욱 모호하게 법규화된 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도 유효하다. 예컨대, 국채는 소유자에게 특정 정부에 금액을 요구할 권리를 준다(구체적인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명시한 조건하에서). 마찬가지로, 채권은 채권 보유자에게 해당 정부의 특정 공무원들이 돈을 지불하도록 지시한다. 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의 수익의 지정된 몫을 받을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여한다. 일정한 수의 주식 소유권은 생산과정에 간접적으로 얼마간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도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주식증서는 회사의 임원들이 준수하도록 위임된 지시이다.

선물Futures, 선도forwards, 상품, 특허, 기계, 모기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모든 실체는 일체의 권리들/지시들로서 기술될 수 있다. 그리고 권리들/지시들은 경제적 거래에 대한 유일하게 이론적으로 일관된 정의를 제공한다.

이제, 자산을 일체의 명세서로 정의한다면, 삶 그 자체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상품이 일체의 자격권한이 아니라 일체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기술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정의를 무효화하는 것일까?

자산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물리적’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소유권ownership**의 개념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⁷⁾

소유권/소유물

루소의 유명한 구절에 따르면, 소유권은 누군가가 “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생각을 해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만큼 순진하다고 생각” 할 때 발생한다(Rousseau/루소, 2009/2010: 63/46). 이 설명은 역사적으로는 의심스럽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 정확하다. 그것은 소유권이 상징적 관계임을 단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유권은 ‘말하는’ 주체에서 ‘믿는’ 공동체로 넘어가는 관계의 유형이다. 앞서 살펴봤듯, **말하기**와 **믿기**는 자산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다. 즉 **청구하는** 주체와 **준수하는** 공동체이다.

소유권의 존재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접하게 관련된 현상인 **소유물possession**과 그것을 명확히 구별해야만 한다. 소유물은 주체와 사물 간의 물리적 관계를 지시한다.

7) 나는 ‘소유권ownership’이라는 용어를 ‘재산property’과 동의어로 간주한다. 용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만 사용할 것이다.

소유권은 인간들 사이의 상징적 관계를 나타낸다.

상품의 교환에서, 소유권과 소유물은 중첩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소유주 owner** 역시 그 **소유자 possessor**—상품의 사용가치의 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소유권과 소유물이 별개의 관계임을 증명하기는 쉽다. 우선 소유권의 변화 없이도 대상의 소유물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비합법적 전유는 이러한 차이를 강조한다. 만일 이 논문의 독자가 주의가 산만한 상태라면, 나는 그녀/그의 컴퓨터를 훔쳐서 달아날 수 있다. 이 도둑질이 나를 컴퓨터의 소유자로 만들어주긴 하겠지만, 컴퓨터의 소유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 나는 소유자로서 나의 통제하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절차—예컨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를 활성화할 자격권한은 소유주에게 부여된다. 소유자도 대상을 통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소유주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경제적 거래의 일반이론은 소유권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이는 대부분의 거래들에서 소유할 대상이 부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자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적 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과 신고전파의 설명은 둘 다 ‘상품의 소유자’, 즉 시장으로 그들의 상품을 가져가는 재단사와 직조공, 피자를 위해서 탄산음료 네 잔을 포기하는 학생(교과서에 실린 전형적인 예들에 따르면)을 끌어들이는 가공의 장면들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틀은 상품 보유자에 관한 허구적 이야기에서 자격권한이 부여된 소유주들에 대한 연구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만일 경제적 거래가 소유권이라는 상징적 지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일체의 동일한 개념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러한 틀 안에는 상이한 종류의 경제적 거래들 간에 아무런 존재론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1킬로그램의 사과, 자동차, 건물, 채권, 주식, 신용부도스왑(CDS), 선물 또는 모기지지는 언제나 자격권한의 교환이다. 소유권—권리들의 상징적 분배—은 왜 특정한 개인들이 특정한 대상들을 소유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소유물—물질적 실체들의 물리적 분배—은 특정한 개인들이 특정한 일을 행할 자격권한을 부여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자산과 물질

나는 소유권이 상징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자산은 생산 및 소비로부터 분리된 가상 공간에 존재한다는 뜻일까? 소유권과 물질적 영역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점은 더욱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자격권한이 그것을 담고 있는 정보를 등록하고, 조작하며, 보존할 수 있는 물질적 기질(基質, substrate)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오늘날 금융의 팽창이 경제의 ‘탈물질화’를 함의한다는 생각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 기호들이 존재하고 순환하는 실체들(잉크, 종이, 하드 드라이브, 스크린, 전선, 알파벳 등)은 어느 상품들처럼 실체적이고 물질적이다. 자산에 포함된 정보는 다른 주체들에게 ‘제시 가능’해야 하며, 인간의 실존이 관계된 한에서, ‘현전’은 물질 안에서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모든 자산의 교환은 물질적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상업적 운용은 자격권한의 재분배이고, 자격권한은 주체들과 세계의 ‘사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이는 물질적 실체들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적 거래는 누가 모자를 쓰고, 차를

운전하며, 집에 살 수 있는 자격권을 부여받았는지를 결정한다. 동일한 근거에서 회사의 소유주는 공장이 같은 도시에 머무를 것인지 또는 회사가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결정할 자격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금융 거래조차도 세계의 물질적 분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 거래는 디지털 정보의 전송이며, 기록 시스템의 물리적 수정으로서 결국 소유주가 행할 수 있도록 자격권이 부여된 것을 재정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은 물질적 기질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작용하고 물질을 통해서 작용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에서, 모든 자산들이 물질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반면에, ‘비물질적 자산’ (즉, 비가시적invisible, 불가촉의untouchable, 무형의intangible, 현전화할 수 없는non-presentable) 같은 용어는 ‘비-존재적non-existent 자산’ 과 동의어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내가 사실은 아마존Amazon의 실소유주라고 해보자. 한데 나의 주식이 ‘비물질적’ 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다고 청구하는 배당금을 내게 지불하도록 설득하기가 어려워진다. (존재론적 접근에서 ‘비물질적’ 자산 내지는 ‘무형의’ 자산은 상상 속 여자친구와 매우 유사하다. 혹자는 여자친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자, 이제 첫 번째 테제(소유권은 상징적 현상이다)와 두 번째 테제(모든 자산은 물질적이다) 사이에 아무런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의 테제는 단순히 자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저장되고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전자의 테제는 단순히 거래에 관련된 실체들의 물질적 특징이 자산의 수행적 권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진술할 뿐이다.

예비적 결론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예비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상품처럼 자산은 교환가치(가격)와 사용가치(자산은 소유주에게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권을 부여한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물질적 차원을 포함한다. 소유주의 권리를 명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물질적으로 저장되고 제시되는)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적 차원이 자산의 사용가치를 충분히 설명해주진 못한다. 자산의 사용가치는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산이 담고 있는 명령에 복종할 때만 **실현된다**. 이러한 인준이 자산의 수행적 권력이다. 그렇기에, 자산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상징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 시선을 돌려야만 한다.
2. 모든 경제적 거래는 소유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변형이다. 재화 및 서비스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물질적인 대상들을 생산하고 소비할 필요가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인간 사회 내에서 물질적 대상들의 생산과 소비는 언제나 상징적인 자격권한의 순환에 의해 매개된다. 다시 말해,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상들을 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자산이 일체의 명령들로 기술될 수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일체의 사회적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행위주체는 오직 인간뿐이기 때문에, 자산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이다.

3. 모든 자산이 자격권한이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많은 자산을 획득할수록, 또는 이미 가진 자산이 사람들에게 대한 통제력을 확장할수록, 더욱 더 권력이 강해진다. 마찬가지로, 투자 포트폴리오와 대차대조표는 소유주의 권력에 대한 기록, (X회사의 노동자들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수취한다, 또는 Y국가의 정부가 창출한 화폐의 일부를 수취한다 등의) 자격권한을 명시한 목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이 자원을 **배분한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일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상징적 자격권한이라면, 시장이 배분하는 것은 권력이다. 시장이 오로지 권력을 배분하므로, 세계의 물리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 자산은 결코 ‘물건’이 아니라, ‘능력’이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그것들의 합법적 소유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구입하는 것일 뿐이다. 예컨대 백신의 특허를 소유한 제약회사를 생각해보자. 우리의 규정에 따르면, 백신 그 자체가 자산이 될 수는 없다. 백신은 유형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게 하는 유형적인 속성을 부여받은 유형적 실체이다. 자산은 ‘백신과 관련된 소유권’, 이를테면 일체의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소유주의 허가 없이 백신을 생산하는 이들을 기소하도록 정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백신은 미생물과 면역 체계에 관한 것이다(생화학적 관계). 자산은 사회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권력 관계). 혹자가 물건, 자동차, 기계의 소유주가 결코 아닌 것처럼, 혹자는 백신의 소유주가 결코 아니다. ‘x의 소유자임’이라는 표현은 ‘x에 대한 자격권한이 부여된 주체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x는 물건이 아닌, 일체의 사회적 행동—일부 경우에만, 특정 사물의 통제와 관련된 사회적 행동—일 수 있다.
5. 경제적 거래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연구의 대상은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권이어야만 한다. 소유권이 소유물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 소유주가 된다면/되었을 때, 상품의 보유자가 된다. 더욱이, 소유권이 상품 보유자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정한다. 예를 들자면, 동물의 사용가치는 공동체가 그것을 음식으로 전환할지 말지를 허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상품의 사용가치가 그 물리적 속성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유권의 상징적 영역에 의해, 다시 말해, 특정한 물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정하는 공동체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지배를 상품 생산 및 교환의 내재적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다. 반대로 권력자본론 접근에 따르면, 지배는 생산수단, 노동력, 상품, 여타의 어떤 **물질적** 실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약속, 기대, 믿음, 지시, 복종 등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말을 고쳐서 다시 말해 보자면, 생산의 물질적 속성이 권력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가 생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누가 기계를 사용할지, 누가 재화를 취득할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공동체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청구권, 신념, 신뢰 등의 상징적 세계이다.

생산에서 권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자산의 내용, 즉 수행적 권력을 지닌 문장들에 집중해왔다. 이제 우리는 그 두 번째 구성요소, 즉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야만 한다.

틀에 박힌 금융적 지혜에 따르면,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소유주에게 화폐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능력에 달려 있다. 예상 수입이 클수록(그리고 관련된 리스크는 작을수록), 자산 가격은 높아진다. 자산의 수행적 권력이 경제적 가치의 전제조건임을 이미 살펴봤다. 자산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바람직할 때 가격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자산은 수행적 권력을 지닐 경우에만 바람직하다. 수행적 권력이 자산의 통약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자산에 존재하는 공통 요소인 셈이다. 한데 자격이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지점에서, 비클러와 닛잔이 정교화한 생산주의적 가치론에 대한 비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생산주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가격은 효용(신고전파적 판본) 아니면 사회적 필요 추상노동(마르크스주의적 판본)이라는 단위들의 명목상 재현이다. 비클러와 닛잔(Bichler and Nitzan, 2002, 2009)은 이 두 학파가 이해하는 방식대로라면, 가치는 이론적으로 정의 내릴 수 없고,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며, 경쟁적 시장에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현실의 자본주의적 경쟁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이론적 허구라는 것—을 논증했다. 나쁜 소식은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 가치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가치론에 대한 비클러와 닛잔의 비판을 상세하게 탐구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론 비판의 중요한 발견들 중 일부를 이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력자본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생산주의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권력양식으로 연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생각은 자산 분석에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가격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둘째, 더욱 일반적으로는, 금융적 실체들이 그 기저의 규모를 단순히 ‘재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적 존재론의 토대를 마련한다.

생산능력 일반 대(對) 특정 사회적 권력

마르크스의 가격 이론은 생산주의적 통념에 단단히 메여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상품의 **가치 크기**는 “노동생산성이 변할 때마다” 같이 변한다(Marx/마르크스, 1981a/2015a: 130/49). 결국 노동생산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숙련 수준, 과학과 그 기술적 응용 가능성의 발전 수준,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합 정도, 생산수단의 규모와 능력 그리고 갖가지 자연적 조건 등이 중요한 요인들이다” (Marx/마르크스, 1981a/2015a: 130/49).

이러한 틀의 문제점은 가격 변화가 생산성 수준의 변화를 표현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연’ 과 ‘사회’ 의 관계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는 결국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행동이 그 등식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두 물체들 사이의 2:1 가격 관계는 사회가 전자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후자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대략) 두 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대적 가격은 해당 사회의 생산력과 각 상품의 생산과정에

서 자연이 제시하는 저항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높은 가격은 그러한 상품의 생산이 더 큰 노고를 수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것은 사회가 자연이 제시하는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냈음을 뜻한다. 생산성 개념은 사회와 자연 간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 이제 우리가 권력 관계의 틀에서 생각해본다면, 화폐적 크기는 자연과 **일반적인** 생산적 역량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들 사이의 관계를 지시한다. 이러한 테제에 따르면, 가격은 자연에 대한 사회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특수한 집단들의 사회적 권력에 의해 결정된다.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역량을 증강시키는 기술혁신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혁신의 전반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혁신의 결과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접근권을 민주화하여 가격하락으로 이어질까?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상대적 권력이 증가할까? 독과점 체제의 형성으로 이어져 가격상승을 주도할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여가시간을 증가시킬까?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하고 실업을 증가시킬까? 권력자본론 관점에서, ‘물질적 결정성’은 최종적 재분배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사회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만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자산과 ‘물질적 영역’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가격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가격은 생산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물론 생산영역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비싼 재화들이 생산되기 위해 더 높은 양의 인간노동을 요구하는 재화들(우주 로켓이 비행기보다 더 가치 있고,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더 가치 있고, 자동차는 자전거보다 더 가치 있다는 식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지 않은가? 게다가 어떤 물체를 생산할 때 기술적 역량이 증가하면 그 물건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점도 사실 아닌가?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신중히 분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더욱 비싼 상품의 생산이 더 저렴한 상품의 생산보다 더 높은 양의 노동을 요구함을 입증하는 수많은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이것이 노동의 양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논증을 구성하진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상관성을 보여주는 일례일 수는 있지만, 인과성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가격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사회적 저항의 정도’를 표현한다고 말해왔다. 더 많은 양의 노동을 동원하는 것은 ‘더 큰 저항’, 즉 더 많은 노동자들의 저항 내지는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의미한 변수는 추상적 노동시간이 아니라, 관련된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저항이다. 경쟁자와 소비자가 더 큰 저항을 행사할 수 없다면 자본가는 재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법이다. 종업원 등의 저항을 줄이는 데 성공하면 자본가는 그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이윤폭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은 **시간의 등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차이**를 표시한다. 가격은 사회적 세력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둘째, 현실주의적인 자본 축적 이론은 생산성 변동이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실제로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특별한 경우가 생산성과 가격 간의 관계가 언제나 권력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생산성 변동의 사회적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권력, 즉 사회 집단들의 특수한 행동이다.

그렇기에 권력은 물질적 생산력에 **추가**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힘으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 반대로, 권력은 막연히 추정된 물질적 변수들의 설명력을 **상쇄**하는 요인이다. 권력을

말할 때, 이른바 노동생산성을 결정한다고 가정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마르크스의 규정으로 돌아가면, 권력이란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조절하는 권력, 과학과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지를 결정하는 권력, 생산과정을 조정하는 권력, 생산수단의 규모와 효율성을 조절하는 권력, 자연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을 조절하는 권력을 뜻한다. ‘권력’은 연역적 추론에 우연성을 도입한다. 생산조건은 권력이 어떠한 결론이라도 도출할 수 있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자산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산은 물질적 세계에 작용하고, 물질적 세계를 전제로 하지만, 자산의 속성이 물질적 결정성에 의해 설명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가격과 생산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가격은 물질적 생산을 전제로 하(고 물질적 세계에 작용하)지만, 가격의 동학은 물질적 영역의 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는 것 말이다. 권력 관계는 생산력의 수준과 그와 관련된 동학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생산조건(물리적 문제)이 권력 재분배의 동학(인간적 사안)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자산의 두 가지 요인: 사용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우리는 이제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규정을 제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었다. 그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자.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금전적 가치는 권력 수준을 나타낸다. 이는 기존 사회 집단(노동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개별 회사, 노동조합, 정당, 전체 산업부문, 자본가 계급 일반일 수도 있는)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모든 과정이 그들의 화폐적 소득 및/또는 화폐적 가치의 증가로서 **표현**되고,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들의 권력을 축소시키는 모든 과정이 그들의 화폐적 소득 및/또는 화폐적 가치의 감소로 **표현**되고, 그러한 **결과들로 나타날** 것이다. 요컨대 권력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 간에는 동일성이 존재한다.⁸⁾

그러므로, 권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화폐적 가치와 관련을 맺는다. 1) 권력은 가치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수행적 권력이 없다면 자산은 아무런 사용가치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낱 비활성 문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2) 자산의 화폐적 가치는 사회적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한다. 통제력이 클수록 가격도 커지는 셈이다. 권력은 가치의 실체이고, 가격은 권력의 척도이다.

자산이 수행적 권력과 화폐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자산을 **자본화된 권력의 단위** *units of capitalized power*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용어[자본화, 권력, 단위-역자]가 우리의 분석의 핵심 요소를 구성한다. 자산은 잘 법규화된 거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단위들’(즉, 별개의 실체들)이다. 다시 말해, 자산은 권리들과 명령들의 분리된 조합들이다. 자산은 관련된 사회 구성원들이 복종하기 때문에 ‘권력’의 단위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은 ‘자산-형태’를 채택한다. 즉 자산은 시장에서 매매되고,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통제의 정도를 표현하는 화폐적 가치로 표시된다.

8) 이러한 ‘행동’ 중 일부는 생산영역(기술적 돌발, 과학적 발견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행동들은 다른 사회적 집단들에 대한 통제력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란, 개혁, 정치적 동맹, 이데올로기적 교리의 확산, 요컨대 권력을 분배하고 사회적 집단들의 통제와 저항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은 자산의 화폐적 가치에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을 염두에 둘 때, 권력양식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회에는 자격권한을 이전하고 규제하는 특수한 양식이 존재한다. (그러한 양식을 권력-배분 기제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기제들은 매우 다양하며, 각각의 사회에서는 상이한 기제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조차도 모든 자격권한이 자산은 아니며, 모든 권리들/지시들의 조합이 판매 가능한 것도 아님은 분명하다.

사회를 **권력양식**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사회에 만연한 권력-배분 기제에 따라 사회를 개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자산의 교역이 주된 권력-배분 기제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본화된 권력이 바로 지배계급이 사회적 현실을 유지하고 재조직하는 (한 마디로, 질서를 창조하는 creorder) 체계라는 것이다. 자산은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의 단위이다. 자본은 자산이 실존하는 가상의virtual 구조이다. 그리고 자산은 자본이 현실화하는 특정한 실체들이다.

금융: 기호로 사회를 제작하는 방법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징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자산과 물질, 가격과 생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금융’이라 불리는 그 수수께끼의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질문할 수 있다.

고전적 도식하에서, 금융 기호는 이른바 실물경제의 변수 및 동학을 **재현한다**. 가격은 **효용** 또는 노동시간에 대한 명목상의 재현이다. 금융자본은 실물자본의 가공적 복제물인 셈이다. 그러나 일단 가치 개념이 이론적 허구임이 증명되면, 금융 기호는 더 이상 **재현**으로 이해될 수 없다. 이제, 금융 기호가 그보다 더욱 실제적인 무언가(추상노동이든 아니면 효용이든)를 대변하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질서 안에서 금융 기호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 재현의 형이상학을 버릴 수 있을까?

권력자본론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금융의 새로운 존재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존재론의 중심적인 생각은 금융영역이 실물경제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언어, 즉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권력 관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규라는 것이다.

우선 ‘금융’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협의적 차원에서, 금융을 경제의 특수한 부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부문 안에서, 은행, 헤지펀드, 증권거래소 등과 같은 기관들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광의적 차원에서, 금융은 사회를 현실적 자산이나 잠재적 자산의 저장소로 법규화하는 언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금융은 자본가 계급이 공유하는 언어이자 그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개입하고자 세계를 재조직하는 기술이다. 협소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은 그들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유형에 따라 구별될 수 있다(신용화폐를 창출하는 은행은 물리적 대물체를 창출하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석유 회사와는 다르다). 그러나 광범한 의미에서, 은행, 자동차 제조회사, 석유 회사가 자본 법규 안에서 작동하는 한 그 모두 ‘금융적’ 실체들이다. 첫 번째 의미에서, 금융은 전체의 한 부분이다. 두 번째 의미에서, 금융은 전체를 상징화하고 재조직하는 양식이다.

비클러와 닛잔이 “모든 자본은 금융이며, 오로지 금융일 뿐”이라고 주장할 때, 이 문장이 “자본주의는 은행과 투기이며, 오로지 은행과 투기일 뿐이다” (불행한 해석)로 읽혀서

는 안 된다는 사실이 지금쯤이면 분명해졌을 것이다. 만일 금융을 광의적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비클러와 닛잔의 어구는 사회적 관계들이 환원 불가능한 상징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단순히 승인할 뿐이다. 상징적인 것은 현실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완벽하게 실제적인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은 “금융이며, 오로지 금융일 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 차원은 이데올로기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현실에 대한 재현을 제공한다. 이데올로기는 어떤 상태를 서술하는, 또는 서술한다고 주장하는 진술들로 구성된다. 금융적 기술과 기호는 ‘물질적 세계’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적 문장(진위를 평가할 수 있는)과 사람들 사이의 상징적 관계를 창조하거나 수정하는 행동을 실행하는 문장(수행적 발화)에 관한 존 오스틴 John Austin의 유명한 구별을 활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판사가 “나는 당신들이 남편과 아내라고 선언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상황을 기술하지 않는다. 적절한 상황에서 선고된다면, 그 발화는 사회적 능력과 의무의 수준에서 상징적 변형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구별은 문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과 관계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Austin, 1962).

이데올로기적 문장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한다. 예컨대, “자본주의는 가능한 모든 사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사회다”라는 진술은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진/위’의 범주로 평가될 수 있다(우리는 이것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재현인지 아니면 잘못된 재현인지 물을 수 있다). 반면에 금융 법규는 인간존재의 행동을 조직하는 일체의 상징적 참조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비클러와 닛잔은 자본화가 자본주의의 기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Bichler and Nitzan, 2002, 2009). 현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공식은 어떤 상태를 전제로 하지만, 그 상태를 기술하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공식은 일군의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판사의 진술문처럼) 적절한 조건에서 선고될 때, 이러한 문장들은 특수한 사회적 실천을 촉발한다. 이러한 진술문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본 축적 실천의 이론적 차원인 금융이라는 분과 전체가 확립되었다. 수행적 수준에서, 자본의 법규가 팽창하고 재생산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자본화 등식 $K = \frac{E}{r}$ 은 사회적 현실을 변화시킨다.⁹⁾

금융을 법규—사회적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해할 때 우리는 금융의 수행적 차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여타의 언어(음악 언어, 건축 언어, 또는 문자 언어)처럼, 금융 언어는 개인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이 출현할 수 있게 만든다. 건축가들의 설계도와 음악가들의 악보는 현실을 재현하는 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현실에 인간들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그것들은 ‘오로지’ 한 장의 종이 위에 그려진 기호들(이나 화면상의 광선들)일 뿐이다. 하지만, 그 기호들은 거대한 인간의 집합체가 그러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취할 수 없었을 정확성과 규모로 조정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기호들이 그 기호들이 연루된 일체의 사회적 관행에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부가한다.

이는 금융 기호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건축 설계도가 ‘가공의 주택’이 아니고, 음악가의 악보가 ‘상상의 교향곡’이 아닌 것처럼, (마르크스의 신념과는 반대로), 자본화가 어떤 상태의 ‘초상화’가 아니라 사회적 과정의 청사진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인해

9) 자본화 공식은 소득 흐름 E 를 가정된 수익률 r 로 할인하여 자산의 자본화된 가치, K 를 산출한다.

자본화는 ‘가공자본’의 창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화는 거대한 인간의 집합체—자본가 계급—가 그러한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취할 수 없었을 정확성과 규모로 조정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요약하자면, 명목상의 실체들이 사회적 현실의 발현적 속성 emergent property을 구성한다. 그것들의 존재가 독특하고도 환원 불가능한 동학을 발생시킨다. 금융은 세계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는 이들의 세계를 조직해낸다. 즉, 금융은 자본가들이 자본 축적의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법규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자본가들은 명령하고 노동자들은 복종하는 법규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금융은 자본을 축적하려 하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이중적 명령 아래 생산과정을 조직한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금융 기호들이야말로 단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공적, 물질적, 비생산적, 추상적…?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통적인 이론들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구조화하는 몇 가지 대당(對當)을 재검토할 수 있다. 처음에 우리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를 구별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역설했다. 과연 이러한 구별을 유지하는 것이 유용할까?

물질적/비물질적. 금융은 흔히 ‘물질적’ 영역과 대립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우리의 발견에 따르면, 물질적/비물질적 구별은 쓸모없다.

우리의 분석의 목표는 모든 경제적 거래가 동일한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자산이 **물질적**(‘순수하게 금융적인’ 자산을 포함하여)이라는 것과 모든 자산이 **상징적**(물리적 대상들에 권력을 부여하는 자산을 포함하여)이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원적 존재론(금융경제와 분리된 물질적 경제라는) 대신에, 두 가지 거대한 집합체의 거래를 통해 자본 축적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리적 대상들(기계, 자연 자원 등)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거래들과 화폐적 흐름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거래들 말이다.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투자가 삶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순 없다(사용가치가 재생산되지 않는다면 사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하게 금융적인’ 거래가 ‘덜 물질적인’ (그 표현이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생산을 지향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화폐적 흐름의 전유를 지향하는 거래 역시 자본주의적 지배의 현실을 구성한다. 그리고 둘 다 자격권한의 교환이다.

‘물질적 생산’과 ‘기호의 생산’ 간의 구별짓기는 전자가 후자를 통해 조직되고 재구성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존재론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생산적/비생산적. 금융을 ‘생산적 경제’와 대립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은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군의 개인들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가령, 기계를 만들고,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피아노 콘서트를 공연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경우에, 생산은 개인들과 외부의 대상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지시한다. 반대로, 금융의 운용은 물체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산과정이 속한 영역을 자산 교환과 차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차 강조하건대, 상황은 더 복잡하다. 자산 교환이 직접적으로 상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산 교환에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음을 뜻하진 않는다. 본 연구가 입증했듯이, 자산은 적어도 사물들의 생산만큼이나 유의미한 무언가를 행한다. 자산은 무엇이 생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력을 배분한다.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고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금융 활동은 ‘생산적’이다. 자, 만일 자산이 자본화된 권력의 단위라면, 그리고 권력이 (다른 무엇보다도) 생산에 대한 권력이라면, 생산은 궁극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에 의해 지배된다. 자산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결론적으로, ‘생산적’ 경제와 금융이라는 ‘비생산적’ 영역 간의 구별짓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신에, 상품을 생산하는 현장(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물질적 과정)과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는 현장(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저항 과정)을 구별해야 한다. 물리학과 공학 같은 학문분과가 전자를 연구하는 데 가장 적합해 보인다. 만일 우리가 권력 관계를 연구한다면, 후자에 초점을 맞춰야만 한다.

실물적/가공적. 이제 ‘실물적 가치’와 ‘가공적 가치’ 간의 구별짓기가 깨지기 쉬운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단순히 재현할 ‘실물적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싫든 금융 기호는 재현될 수 없다. 둘째로, 우리는 물리적 대상들(상품, 기계, 건물)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자산과 미래의 수익에 대한 청구권 사이에 아무런 존재론적 차이도 없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생산이 금융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금융이 생산을 결정하는가?’라는 반복되는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금융’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두 가지 의미 간의 차이점이 이 질문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하다. 만일 금융을 은행, 헤지펀드, 투기꾼 등과 같은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으로 이해한다면, 그 질문은 어떠한 난점도 제기하지 않는다. 생산은 금융이 필요 없지만, 금융은 생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인간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금융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산이 ‘결정요인’, 즉 금융의 가능성의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광범한 의미에서 금융을 권력양식의 법규로 이해한다면, 금융이 생산을 결정하는 영역이라 주장할 수 있다. 금융 기호가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어떤 상품이, 어느 정도 수량으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생산될지 등을 지배계급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은 생산에 선행한다. 금융은 자본가 계급의 통제하에서 생산과정이 수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생산이 없다면, 금융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이 없다면, 자본의 축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가공적/실물적이라는 구별을 삭제한다면, 권력은 세계와 주체들의 신체에 행사되지만, 금융 법규는 인간들 사이의 권력 관계를 조직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자본 축적이 (여타의 권력양식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과정인 동시에 물질적 과정임을 인식할 수 있다.

추상적/구체적.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가치 개념이 이론적 허구에 불과하다면,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을 계속해서 구별할 이유도 없다. 대신에,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구체노동과 권력 관계를 재생산하고 수정하는 동등하게 구체적인 활동들을 구별하는 것이 더

육 합리적으로 보인다. 전자는 일군의 개인들과 일체의 외적 대상들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수반한다. 후자는 상이한 사회 집단들 간의 권력 관계를 수반한다. 그리고 사실상 사회 이론에는 이미 그것을 지시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바로 계급투쟁이다.

결론: 추상적 노동에서 구체적 권력으로

그렇다면 이제 비등가물(非等價物)끼리의 교환을 생각해보자.

(Marx/마르크스, 1981a/2015a. 262/210)

자산과 금융 분석을 통해 거처온 여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자산은 자격권한이다. 자산에 관한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교환되는 실체들이 ‘사물들’이 아니라 자격권한, 즉 수행적 권력을 지닌 권리들/지시들의 조합임이 증명된다. ‘무언가의 소유주’는 특정한 집단의 개인들에게 일군의 특정한 행동을 요구할 ‘자격 권한이 부여된 주체’이다.
2. 자산을 갖는 것은 권력, 예컨대 공동체의 자연 자원에 대한 권력, 다른 개인들의 행동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권력, 미래의 소득 흐름에 대한 권력 등을 갖는 것이다. 권력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평범한 상품들의 소유권—즉, 특정한 사용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은 그러한 자산에 가장 적은 양의 권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하다. 반대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거대한 개인들의 집합체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자산이다.
3. 가격은 ‘사회적 권력의 정도’를 표현한다. 생산주의적 이론의 신념에 반하여, 가격은 자연이 사회의 생산력에 반대하는 저항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 집단들의 상호적 저항을 수량화한다. 가격 체계는 저항의 그물로 이루어진 지도이다. 이 테제는 상품들 사이의 **가치의 등가성**에 기초한 자본주의 설명에서 사회 집단들 사이의 **권력의 차이**에 기반한 설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적 관계의 상징적 차원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관념론적’ 함정에도 빠지지 않고, 자본 축적 이론의 연구 대상이 상품 생산이 아닌 권력 재생산임을 단순 명료하게 인정할 수 있다.
4. 금융은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의 법규, 즉 자본가 계급이 사회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을 통제하는 사회적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자산과 다른 금융적 실체들이 ‘상징적’이라는 사실이 그것들을 허구로 만들진 않는다. 그것들은 권력 기술의 개념적 도구들이다. 광의적 차원에서, 금융은 ‘산업적’ 생산이나 ‘물질적’ 생산에 대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산업적 생산은 금융 법규 안에서, 그리고 금융 법규를 통해서 조직되기 때문이다. 오스틴을 의역해서 말해 보자면, 자본주의적 권력양식은 숫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조직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실천적 답변이다.

5. 이제 왜 사회이론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관계 문제에 대한 결정적 답변을 제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잘못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산 분석은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무엇보다도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다만 소유권과 자격권한의 이전을 통해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이다. ‘실물경제’가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실제적 지배’를 연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6. 자산은 자본화된 권력의 단위이다. 자본은 자산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상의 구조이다. 그러나 자본은 그것을 ‘현실화’하는 자산 안에서, 자산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자본가들에게, 자본을 축적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자산 가치 증대는 자본가들의 실천을 견인하는 목표이다. 자본가들은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더 적게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무엇이 자산 가치 상승(또는 하락)을 가능케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곧 자본 축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급진적 사상가들의 연구에서 왜 자산이 부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통적인 틀 안에는 자산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여타의 금융적 실체들과 마찬가지로 자산은 ‘물질적’ 요소들에 설명력의 독점권이 부여된 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진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권력자본론은 자산이 자본주의의 톱니바퀴로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이 보여주었듯이, 자산은 권력의 단위, 즉 사회 집단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이익을 얻)도록 소유주에게 자격권한을 부여하는 별도의 실체들이다.

이 논문은 금융의 존재론을 정교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서들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아직 답해야 할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나는 자본을 ‘가상의’ 구조로 규정했는데, 이 개념을 더욱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가상적인’ 것의 존재론적 속성은 무엇인가? 앞서 또한 자산이 경제적 거래의 단지 하위집합일 뿐이며, 경제적 거래는 권력을 배분하는 다른 여러 가능성들 중에 단지 하나의 방식일 뿐임을 살펴본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적 권력 관계는 다른 권력 배분 기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자산은 다른 형태의 경제적 거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산은 거대한 비합법적 경제의 세계와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까?

한 세기 이상 동안,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상품들 사이의 등가성이라는 가정에 의해 오도되어왔다. 등가성에서 권력 차이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망한 연구의 장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비등가물들의 교환을 가정해보자...**

참고문헌

- Adkins, Lisa, Melinda Cooper, and Martijn Konings. 2020. *The Asset Economy*. Cambridge: Polity Press[엡킨스, 리사, 멀린다 쿠퍼, 마르티즌 코닝스, 2021. 『이 모든 것은 자산에서 시작되었다』. 김현정 옮김. 서울: 사이.]
- Austin, John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C Black. 2005. *Dictionary of Banking and Finance*. London: A&C Black.
- Banks, Erik. 2010. *The Palgrave Macmillan Dictionary of Finance, Investment and Banking*.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ichler, Shimshon, and Jonathan Nitzan. 2002.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Israel*. London: Pluto Press.
- _____. 2009. *Capital as Power. A Study of Order and Creorder*. RIPE Series in Global Political Econom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비클러, 심손, 조나단 닛잔. 2004. 『권력 자본론』. 홍기빈 옮김. 서울: 삼인.]
- _____. 2012. Imperialism and Financialism: The Story of a Nexus. *Journal of Critical Globalization Studies* (5, January): 42-78.
- _____. 2014. Can Capitalists Afford Recovery? Three Views on Economic Policy in Times of Crisis. *Review of Capital as Power*. Vol. 1. No. 1, October. pp. 110-155.
- _____. 2020. The Capital as Power Approach. An Invited-then-Rejected Interview with Shimshon Bichler and Jonathan Nitzan. *Working Papers on Capital as Power* (2020/02, June): 1-58.
- Birch, Kean, and Fabian Muniesa. 2020. *Assetization, Turning Things into Assets in Technoscientific Capit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Bryan, Dick, and Michael Rafferty. 2006. *Capitalism with Derivatives. A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Derivatives*. Nueva York: Palgrave Macmillan.
- Chesnais, François. 2016. *Finance Capital Today. Corporations and Banks in the Lasting Global Slump*. Leiden and Boston: Brill.
- Duménil, Gérard, and Dominique Lévy. 2011. *The Crisis of Neoliber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뒤메닐, 제라르, 도미니크 레비. 2014. 『신자유주의의 위기』. 김덕민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Durand, Cédric. 2014. *Le Capital Fictif. Comment la finance s'approprie notre avenir*. Paris: Les Prairies Ordinaires.
- Epstein, Gerald. 2005. *Financialization and the World Economy*. London: Elgar.
- Foster, John Bellamy, and Fred Magdoff. 2009. *The Great Financial Crisis: Causes and Consequences*. Nueva York: Monthly Review Press[포스터, 존 벨라미, 프레드 맥도프. 2010. 『대금융위기』. 박종일 옮김, 서울: 인간사랑.]
- Froud, Julie, Colin Haslam, Sukhdev Johal and Karel Williams. 2002. Financialisation and the Coupon Pool. *Capital and Class*, Vol. 26, Issue 3, 119-151.
- Giraud, Pierre-Noël. 2001. *Le Commerce des promesses. Petit traité sur la finance moderne*. Paris: Éditions du Seuil, Paris.

- Hudson, Michel. 2015. *Killing the host. How Financial Parasites and Debt Bondage Destroy the Global Economy*. Counterpunch Books. E-book.
- _____. 2017. *J is for Junk Economics: A Guide to Reality in an Age of Deception*. ISLET, E-book.
- Investopedia. Assets.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sset.asp>. Accessed on January 10, 2021.
- Krippner, Greta. 2005. The Financialization of the American Economy. *Socio-Economic Review*, 3: 173-208.
- _____. 2011. *Capitalizing on Crisis. The Political Origins of the Rise of Finance*.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Langley, Paul. 2008. *The everyday life of finance. Saving and borrowing in Anglo-America*. Nueva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pavistas, Costas. 2011. 'Theorizing financializatio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5(4), 2011: 611-612.
- _____. 2016. *Beneficios sin Producción. Cómo nos Explotan las Finanzas*. Madrid: Traficantes de Sueños[라파비차스, 코스타스. 2020. 『생산 없는 이윤』. 송종운 옮김. 서울: 서울경제경영.]
- Leyshon, Andrew, and Nigel Thrift. 2007. The Capitalization of Almost Everything. The Future of Finance and Capitalism. *Theory, Culture & Society*. (SAGE, Los Angeles, London, New Delhi, and Singapore), Vol. 24(7-8): 97-115.
- MacKenzie, Donald. 2006. *An Engine, Not a Camera. How Financial Models Shape Markets*. Massachusetts and London: The MIT Press.
- Martin, Randy. 2002. *The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Margin, Ulf. 2019. The Autocatalytic Sprawl of Pseudorational Mastery. *Review of Capital as Power*. Vol. 1. No. 4. May. pp. 1-30.
- Marx, Karl. 1981a.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1*. Harmondsworth: Penguin Books[마르크스, 카를. 2015a.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I [상]. 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마르크스, 카를. 2015b.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I [하]. 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 _____. 1981b.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 3*. Harmondsworth: Penguin Books[마르크스, 카를. 2015c.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III [상]. 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마르크스, 카를. 2015d.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III [하]. 김수행 옮김. 서울: 비봉출판사.]
- McNally, David. 2011. *Global Slump: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Crisis and Resistance*. Winnipeg: PM Press[맥넬리, 데이비드. 2010. 『글로벌 슬럼프』. 강수돌, 김낙중 옮김. 서울: 그린비.]
- Muniesa, Fabian, et al. 2017. *Capitalization. A Cultural Guide*. Paris: Presses de Mines-Transvalor.
- Rousseau, Jean-Jacques. 2009. *Discourse on Inequality. On the Origin and Basis of Inequality Among Men*. Auckland: The Floating Press[루소, 장 자크. 2010. 『인간 불평

등 기원론』. 김종현 옮김. 서울: 웅진씽크빅.]

Smullen, John, and Nicholas Hand, eds. 2005. *A Dictionary of Finance and Bank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